|  |  |  |  |
| --- | --- | --- | --- |
| **파견대학(원)** | 와세다 대학교 | **파견국가/도시** | 일본/도쿄 |

|  |  |
| --- | --- |
| **제 목** | 캠퍼스 아시아와 함께한 일주일간의 배움 |
| 저는 2019년도 2월에 진행된 고려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제가 갓 입학한 신입생 시절, 정경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를 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프로그램이었지만 매 학기 여건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2월 와세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왔을 때 곧바로 일정을 확인했고 바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데드라인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며칠이 지나자 캠퍼스 아시아 오피스 측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고 제 수업 시간표에 맞춰 면접시간을 잡아 주시는 등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며칠 뒤 합격했다는 메일을 교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캠퍼스 아시아 봄 단기 프로그램의 주제는 Social innovation이었습니다. 지진 및 쓰나미 재해 지역인 이와테를 방문하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을 되살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적이었고, 이를 8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 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대학생들인데 저희가 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고 이와테에서 마주할 상황이 한국에서 보고 겪은 자연재해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와테에 도착한 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테에 도착한 첫 날엔 도시의 축소 모형을 보며 지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테가 쓰나미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몇 십년에 한번씩 큰 쓰나미가 몰려왔고 사람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 벽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다의 풍경과 향을 막아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잊게 만들었고 해안 벽이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마을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저희는 설명을 들은 뒤 쓰나미가 피해를 입힌 건물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의 대피 경로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무너진 시청에선 잠긴 옥상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주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고 한국에서도 간혹 보이던 재난시에 위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생각났습니다. 대피 경로를 따라 걸어가며 체력이 부족한 노인분들과 가족들께서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라야 하던 산이 노인분들께서 오르기는 버거운 산이었기 때문에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을 올라가보니 높이도 그리 높지 않고 예상보다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기운이 있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조별로 나뉘어 각자 본 것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달랐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날 본 장면에 충격을 받았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많은 건물들이 새 것이라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전부 부서져버렸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전에 제가 새 물건들을 선호하던 상황들에 대비되며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과 쓰나미를 잘 이겨내고 이와테에 다시 돌아와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설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와테에서 묵던 숙소의 주인분도 그런 분들 중 하나이셨습니다. 당시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알리기 위해 당시에 찍어 두셨던 비디오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주변에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자신이 일상으로 돌아와 살면 다른 사람들도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서 이와테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고 저희는 말씀을 듣는 내내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다행이도 끝까지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재난 이후에 다시 위험 지대로 돌아가는 분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위험에서 벗어나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용기가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깊게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엔 지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해당 분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어업과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을 오전에 만나 이와테가 어떻게 자신의 해산물들을 홍보하여 돈을 벌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건설업에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날에 슬픔에 대해 말한 것에 비해 확실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외국 학생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고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외국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중시하는 가치들과 학생들의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흥미로웠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신선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내의 장작 회사에서 장작을 패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도끼가 쥐여지자 긴장했고 초반엔 어설프게 나무를 찍기만 했지만 후반엔 요령이 생겨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강하게 쓰게 되어 며칠간 손목에 통증이 남기도 했습니다. 노부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였는데 매일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 역시 쓰나미를 겪은 뒤에도 이와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셨는데,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니 나는 쓰나미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이와테에 남아있고 그들을 위해 현재는 상품성이 있는 나무가 아닌 오래되고 상한 나무만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갖춘 마을이라면 이와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뒤엔 이와테가 최근에 겪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다양했습니다. 각 조들은 해안 벽의 부작용과 장점을 두고 새로 해안 벽을 지어야 할지, 시청을 무너진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부숴버릴 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와테에선 이미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 사안들이었지만 일부러 결과를 안 알려주신 채로 토론을 진행해주신 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양측 모두가 피해자였고 각자의 아픔이 있었기에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테에서 돌아온 뒤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내적 에너지에 관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를 최종 발표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저희가 이와테에서 만난 인물들을 하나씩 맡아 그들이 겪은 갈등과 어려움을 연기로 표현한 UCC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조원 중에 영상 편집을 잘 하는 분이 계셔서 최종 편집을 부탁했고 스토리라인과 화면 구성을 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소품도 의상도 대본도 없이 찍은 영상이었지만 다들 최선을 다했고 특히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연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재난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이와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흥미로웠던 일은 의외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지된 인원보다 와세다 대학교와 북경 대학교 측에서 훨씬 많은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각 조에서 일곱 명 중 단 한 명만이 고려대 측에서 참여한 학생인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다들 아쉬워했고 고려대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을 데려왔으면 토론에서도 더 든든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많은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동시에 ‘내가 침묵하면 한국 학생들의 의견은 토론의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참여한 다섯 명 모두 두세 배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다른 분들께도 보였는지 이후 교수님께 저희가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며 모두 생각이 깊은 우수한 학생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참여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 재해의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차적, 삼차적 피해까지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다녀온 한국 학생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와세다 대학에서 만난 일본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있었고 과제도 있어 신체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만큼 매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보람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학입학 이후 보낸 방학 중 가장 의미 깊은 방학을 고르라 하면 전 망설임없이 2019년도 겨울방학이라 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글을 마칩니다. | |